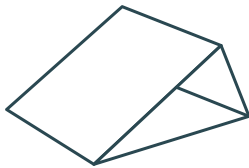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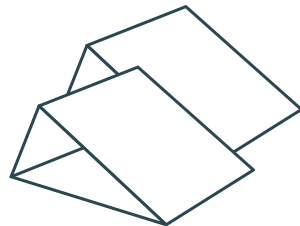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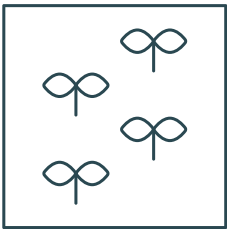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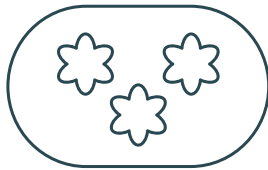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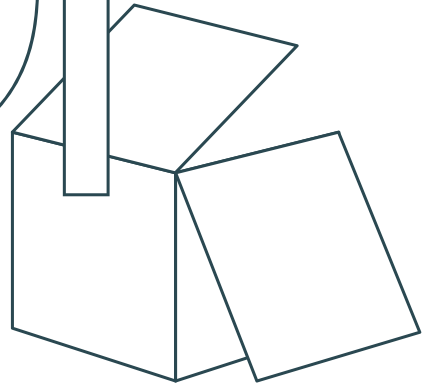


모두의숲

이야기



모두의숲

2018년,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던 봄의 입구에서 우리는 텅 빈 공원의 잔디를 거두어 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삽질을 하고 땅을 일구어 작물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봄기운이 한창이던 때에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쪽에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나무를 자르고 덧대어 재미난 놀이기구들을 더해 놓았습니다. 여름의 섯푸름이 다가오던 때에는 작물을 수확하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함께 놀았습니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꺼내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별이 노랗게 물들어 갈 때는 찬바람을 이기고 자라나는 기특한 작물도 심어 가꾸었습니다. 작물들은 잘 자라 주었고 풍성하게 거둔 수확물로 김장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햇살 좋은 어느 날 다시 한 번 사람들을 불러 모아 축제를 열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 언니, 오빠, 형, 누나, 동물과 곤충들도 모두 모여 신나게 놀았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다 같이 모여 빈 땅에 나무도 심었습니다. 곧 불어올 매서운 바람을 잘 견뎌주기를 바라며 다가올 봄을 기약했어요.

학습관 앞마당 공원에 ‘모두의숲’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상상은 했지만 늘 거기에서 멈추곤 했어요. 그러다 ‘모두의숲’이라는 이름이 생기고부터는 모든 일들이 시간, 계절, 날씨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정말 ‘모두의숲’스러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모두의숲에서 보낸 사계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가올 봄부터 가득 채워질 여러분들 이야기를 위해 아직 비워둔 곳이 있어요. 우리 같이 놀아요. 모두의숲에 놀러 오세요.

4 모두의숲에서는

8 모두의숲 구석구석

모두의숲에서 만난 사람들

11 용범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최용범

15 그렇게 우리를 떠나간 우만동 사총사 — 이정행과 주부들

17 초보농부의 도시텃밭 ‘자 이제 시작이야, 내꿈을!’ — 강지혜

20 모두의숲에서 자라나는 아이리스와 에이든 — 아이리스와 에이든 남매

26 놀아라 놀아라, 아이들아 — 허정희

29 문화로 놀이짱, 괜히 놀이짱이 아니다 — 김정석, 오아름

33 모두의놀이터,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김경오

42 놀이터 토크에 다녀왔어요 — 미샤라

43 모두의숲 사계절

돌봄과 치유

전생애주기에 걸친 서로돌봄,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모두의숲에서는

놀이와 문화

모두의 숲과 놀이, 문화의 접목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연결과 변화

스스로 움직이고 교류하는 시민 앞을 삶으로 이끄는 실천공동체가 활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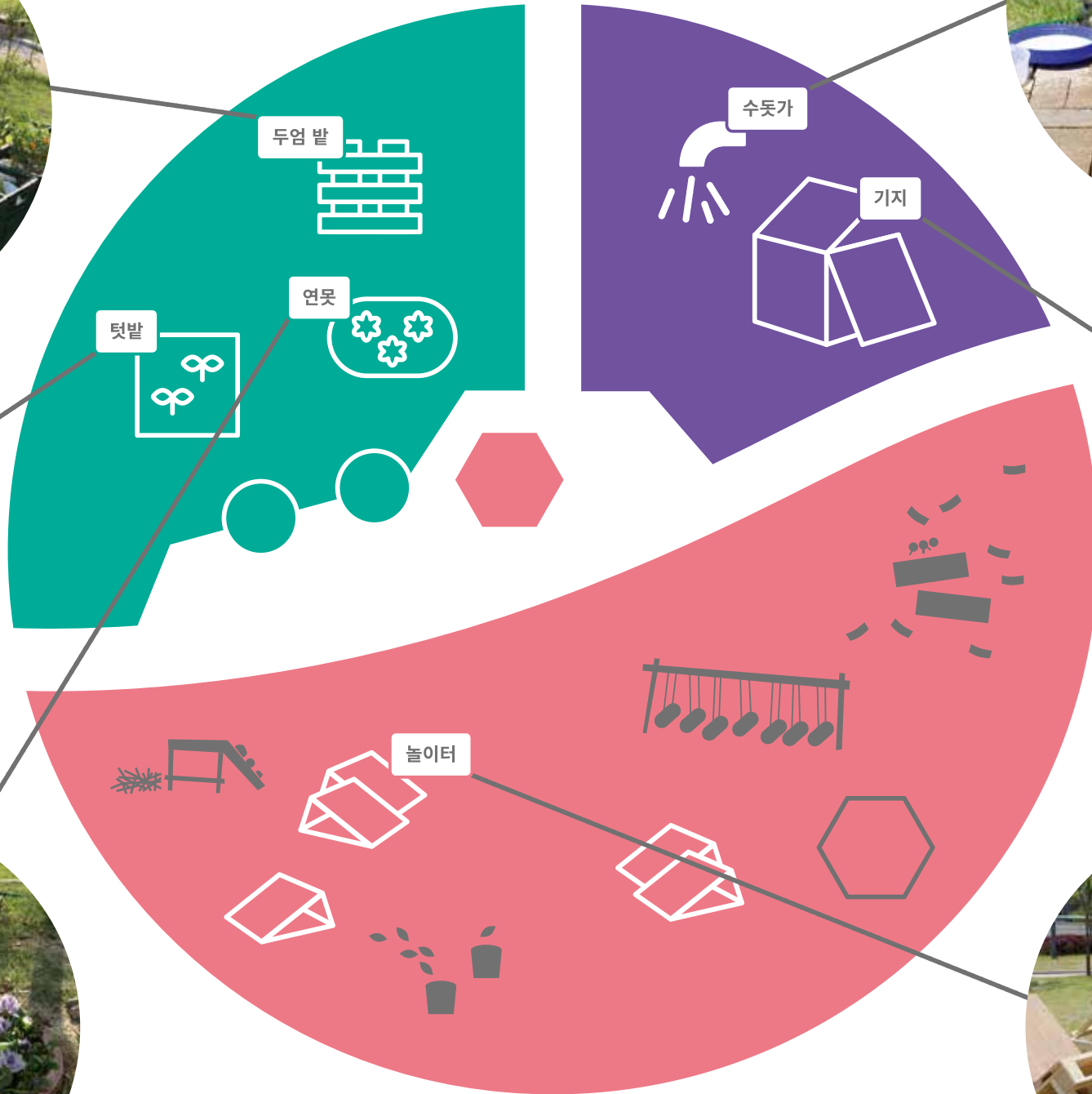
모두의숲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활용하고 유지하는 모든 단계는 학습의 과정으로 제시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참여자가 주도하는 장소로 변해갑니다.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 시민이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가는 과정과 관계망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모두의숲에 오는 시민은 단순한 주민 참여자가 아닌 학습자, 학습된 시민, 학습중인 시민으로 설정합니다. 모두의숲을 통해 연결과 변화의 주체이자, 역할 모델로 진화되면서 매개자로서 또 다른 시민의 참여와 동기를 유발하는 희망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의숲 구석구석

모두의숲



텃밭



2017년 거북이공방 활동 모임 원들은 학습관에 텃 밭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 곳들이 아쉬워 나무상자를 만들어 텃밭을 엮고 작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학습관 마당에 나타난 작은 텃밭 상자는 모두의 눈에 띄었습니다. 힘쓰는 일이 필요할 때면 길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손을 더해주기도, 소싯적 농사를 지어본 몇몇 어른신들은 틈틈이 노하우를 알려주곤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이른 아침과 저녁으로 경비 선생님들이 텃밭의 물을 주고 이름 모를 이웃에 의해 상추가 숙아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손길이 쌓인 작은 텃밭 상자에는 어느새 토마토와 상추 등 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학습관을 오가고, 산책하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였고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나고 꾸리는 텃밭을 만들자고요. 그리고 2018년 봄, 앙상한 나무와 잔디로 덮여있던 학습관 주차장 공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흙을 일구고 땅을 만들며 그렇게 우리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칠었던 땅의 흙은 이제 보드랍고 짙은 색을 띠니다. 생기를 찾는 땅처럼 그곳에 머무는 우리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엄 밭



1m 남짓한 깊이, 뿌리가 엉기성기한 잔디가 깔려있습니다. 유리 조각, 돌, 잡다한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는 흙.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입니다. 좋은 비료를 사 뒤섞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화학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무엇이 들어있는지 농사 초보인 우리에게도 어려울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사방법과 취지와는 맞지 않았습니 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거름을 만들자’

모두의숲 속 텃밭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도심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두엄 밭이라, 냄새와 모양새 때문에 주저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또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나무 팔레트로 벽을 세우고 공간을 뒤 문으로 사용했습니다. 두엄 밭 주변에는 초록한 바질과 꽃 화분을 두었습니다. 두엄의 쓸 재료로는 되도록 냄새를 줄이기 위해 양념이 안 된 재료들과 볶짚, 작물 잎 등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지붕도 만들어주고 주변에는 다양한 꽃과 작물들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텃대고 섞고 더하며 두엄 밭은 계속해서 모두의숲 도시 텃밭에 스며들 예정입니다.

두엄 또는 구비(厩肥)는 가축의 배설물, 축사에 까는 짚 등의 재료를 퇴적 발효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로 농업에서 유기 비료로 사용됩니다. 두엄은 토양에 박테리아를 가두는 질소와 같은 유기물, 영양분을 보충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토양비료 용어사전, 2012. 1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놀이터



모두의숲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터. 2018년 경기도시공사 목공 동아리원들과 ‘거북이공방 놀이터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익숙해서 지루한 미끄럼틀, 시소, 그네 없이도 누구나 신나게 놀 수 있는 모두의놀이터를 상상하며 나무를 자르고 이어 붙여 만든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놀이터입니다. 흔들흔들 아슬한 구름다리 와 벽을 타며 뛰어 다닐 수 있는 닌자스텝스, 가파른 오르막에 박힌 들성듬성한 나무토막을 밟고 일어서면 폭신한 벚단 사이로 점프! 타이어와 벚단 수레, 대야, 물 호스로 계절마다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가는 우리 동네 놀이터입니다.

연못



모두의숲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텃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만드는 방법

놀이터축제 때 사용하려고 사둔 대야를 활용했다. 대야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구덩이를 판다. 그리고 대야를 묻는다. 옆에 흙을 덮어 고정시켜 준 뒤 주변에 크고 작은 돌들을 올려두어 움직이지 않도록 힘을 준다.

사용처

① 빗물저장소

식물들에게 빗물은 수돗물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는 물이다. 비가 오면 작은 연못은 빗물로 가득 찬다. 햇빛 쬐한 날에도 연못을 이용해 빗물을 식물들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무더운 여름 저 멀리 화장실에서부터 연결된 호스를 끄끄거리며 끌어와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② 식수대 for 곤충

텃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심는 작물뿐 아니라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풀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곤충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비, 벌, 메뚜기, 여치... 연못은 찾아오는 곤충들의 식수대로 사용되었다. 날씨가 더운 날이면 연못은 양봉장처럼 벌들이 가득하다. 부레옥잠 잎에 매달려 여유를 즐기기도, 가끔은 물을 마시다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한다. *이럴 땐 나뭇가지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③ 부레옥잠 집

어느 날, 한 수강생이 연못이 생겼으니 부레옥잠을 키워보자고 가져왔다. 5~6개의 작은 부레옥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어느새 인가 연못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부레옥잠은 여름-가을 내내 꽃을 졌다 폼다 반복했다. 연못은 꽃 피는 부레옥잠의 집이 되었다.

④ 풍당거름

어렸을 때는 비 오는 날이면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자주 만났다. 누가 먼저 이 웅덩이를 차지할까, 급히 달려가 손과 발로 풍당거리며 놀았던 기억이 있다. 이때, 발이 젖거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단지 놀이에 불과했다. 요새 도시는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 대신 단단하고 평평한 재미없는 길만이 있어 웅덩이를 보기란 쉽지 않다. 365일 모두의 숲 연못에는 물이 차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풍당거름을 할 수 있다.

기지



‘문화로놀이장’이 설계하고 제작한 모두의숲 기지. 어릴 적 읽던 책에는 숲속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기어 올라가면 나뭇가지 사이에 판자를 덧대어 만든 나만의 공간이 있었죠. 참 부러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에서 오는 친구들을 보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아채기도 합니다. 가만히 누워 하늘을 보면 떠다니는 구름과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모두의숲에도 우리들을 위한 기지가 세워졌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뛰어 올라가 다락에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창고에는 모두의숲에서 쓰는 공구와 도구, 농기구들이 가득하고 기지의 문이 활짝 열리면 도구를 꺼내 친구들과 작업하고 놀이터에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썬터이자 놀이터이자 창고인 우리들만의 기지에서 모두의숲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수돗가



모두의숲에는 물을 줄 만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텃밭을 일구기 시작하며 물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긴 호스로 학습관 화장실에서부터 텃밭까지 몇 십 미터를 끌어오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외국어마을 앞 수풀 더미 한켠에 자리한 수도꼭지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주고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쓰려고 한가운데에 연못도 만들었지만 여름에는 꿀벌들의 연못이었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버리기도 합니다.

모두의숲에서 만난 사람들



용범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최용범

도시농부워크숍 강사, 자연누리텃밭정원 대표
모두의숲을 함께 상상해온 사람

현민주(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모두의숲은 나무가 자라기도 어려울 정도로 깊이가 낮고 뻣뻣한 잔디로 덮여있어 텃밭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텃밭강좌를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최용범 원래 이곳에서 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을걸요. 어려울 거예요’라고 해서 마음을 접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곳(모두의숲)에 농사를 할 거예요. 해볼까요?’라고 이야기해줘서 너무 좋았죠. 땅 열악한 건 열악한 거고 그래도 해보자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민주 의견을 주실 정도로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모두의숲에서 텃밭에 대한 상상이나 계획이 있으셨나요?

용범 땅 자체는 안 좋지만, 공간이 매력적이었어요. 예전에 이곳은 연무중학교 운동장이었던 말이지. 어쨌든 간에 우만동에 계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추억이 있는 곳이니깐요. 이곳에 텃밭을 만들어 두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텃밭이 마을과 가깝잖아요. 텃밭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야지. 하지만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아 아쉽긴 하지요.

민주 그래도 마을 분들이 오며 가며 많이 찾아오셨어요.

용범 조금 더 잘 펼쳐놓으면 마을의 원두막처럼 편히 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가는 공간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나눠 먹는 공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곳이 공공시설이니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이 시민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민주 몇몇 사람들에게 모두의숲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령, 시민들이 오가는 공간이니 깔끔하게 구역이 나뉘어 있고 울타리 같은 것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정돈에 힘을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돈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워낙 도시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익숙해서. 텃밭 하나하나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면 튼튼하고 높은 쇠 울타리를 치자는 말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 또한 관리해야겠죠.

민주 얼마 전, 1년의 농사가 끝이 났어요. 시농제부터 수확제까지. 1년의 농사 어떠셨나요?

용범 재밌었어요. 내가 계획한 커리큘럼이 있지만 사이사이에 담당자들이 활동들을 넣는 것에 대해서 나오셔서 재밌었지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뭐 해볼까요?’ 하면 같이 확 펼쳐버리는 부분 때문에 더 재밌었어요. 강사로서 오기보다는 작물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함께 둘러보러 오는 편한 시간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강좌처럼 틀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싶어요. 요즘 도시 텃밭들도 한계가 보이는 게 대부분의 텃밭이 규격화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모습들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본래 목적들이 사라지는 거 같아 아쉬움이 많거든요. 이곳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모두의숲 전체가 텃밭이 아니고 저쪽에 보면 놀이터도 있잖아요. 텃밭이 가진 단점이라고나 할까? 농사만 하면 지루해지기도 하거든,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민주 맞아요. 수원에도 도시 텃밭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용범 그런 곳들과 모두의숲 텃밭은 다른 것이 있어요. 이곳도 어떤 틀이 있긴 하지만 행사나 협업이 많이 섞여 있지. 사실 어디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힘을 많이 쓰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이 해봐요’, ‘이거 해보는 건요’라는 것들. 담당자들 세 명이 개성 있어 좋았지.

민주 모두의숲에서 도시농부워크숍을 하면서 텃밭 농사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많았어요. 시농제, 수확제 그리고 김장도 했죠. 축제 때도 다 같이 참가하고. 내년에도 한다면 어떠세요?

용범 그런 활동이 재밌고, 또 항상 신경 안 쓴다고는 하지만 신경 엄청나게 쓰여요. 많이 쓰여. (웃음)

민주 보통 어떤 수업을 들을 때 방법과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어 정해진 것을 수행한다면, 농사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방법을 찾고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도울 뿐 결국 자연이 짓는다고요.

용범 결국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이해 못 하면 어려워요. 이런 곳이 드물어요. 없어. (웃음)

민주 선생님은 앞으로 모두의 숲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가 있으세요?

용범 제대로 텃밭을 꾸려보고 싶어요. 요리도 제대로 섞어서 정규적으로 펼쳐보고 싶고. 견학도 좀 가고 싶어요. 또 지금보다 밭을 늘릴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 텃밭 개간이야. 자기 밭을 넓히는 것부터, 개간을 시작하고 싶어요.

민주 선생님이 최근에 주신 커리큘럼을 보면 예전에는 주로 농사이야기가 주였다면, 요새는 책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견학, 요리 등 다양한 주제가 많이 생겼어요.

용범 그러게. 확실히 농사만 이야기하면 지루해져요. 도시에서 농사가 어떻게 보면 보편화 돼.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끝나고 딱 정해져 있어서 다른 걸 계속 섞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섞어야지만 재밌는 거 같고 흥미도 가고. 내가 계속 구굴링하는 것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이라는 것은 찾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래서 이곳에서는 인문학이나 다른 주제를 넣어서 일상으로 연결 짓고 해보는 거죠. 물론 방향에 따라 교육내용이 안 그런 곳도 많지요. 단순히 농사기술만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 아예 전문 농사만 하는 곳도 있고 도시랑 완전히 섞여서 얘기해야 하는 곳도 있고. 여기는 다른 색들을 자꾸 섞어 보고 있지요.

민주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도시농부워크숍은 이거 배우고 다음 단계로 가는 방식처럼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업 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에 멈추기도 하고 이야기들을 나누며 답을 찾아가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용범 워낙 오랜 시간 같이 하니 시간에 대해 부담이 안 되어 좋아요. 민주선생님은 농사 어때요?

민주 저는 농사가 좋아요. 무거운 무언가를 터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를 내려놓는 기분이예요. 작년에 작게 텃밭 상자로 농사지를 때, 흙 만지면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네요. 선생님은 모두의숲에서 농사지으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용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나 할까. 여기는 내가 중간마다 계속 다른 걸 펼쳐볼 수 있어서, 여기서 펼쳐본 걸 다른 데에 가져가서 해보기도 하거든. 그런 자유로움이 좋지. 담당자는 싫을 수도 있지만.

민주 함께 실험하면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학습자들이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시도해보는 기회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떠나간 우만동 사총사

〈텃밭의봄과여름〉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봄. 모두의숲에 어떤 손님들이 찾아왔다.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동네 어르신 몇 분이였다. 이미 강좌는 시작되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의숲 텃밭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반가웠다. 결국 그분들에게 텃밭을 내어주는 대신, 우리 모두의 텃밭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다. 아침마다 나와서 그분들의 텃밭은 물론 다른 이들의 텃밭에도 물을 주고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다. 도시농부워크숍 수강생들이 모두 매일같이 나와서 물을 주고 작물을 보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보살핌이 작물에는 소중한 일이었다. 동네 어르신 이정행님과 네 명의 주부들. 그들과 함께 하는 텃밭의 봄과 여름이 시작되었다.

그분들과 우리는 종종 텃밭에서, 스페이스X에서 마주쳤다.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텃밭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싱싱하게 자란 텃밭의 상추로 점심을 나누자는 약속을 했다. 그분들의 텃밭은 유난히 울창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새벽같이 나와 고루고루 물을 주고, 텃밭에 좋다는 한약재 찌꺼기를 주며 누구보다도 큰 정성을 들였기에 건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채소들을 함께 나누는 점심 약속이라 우리에게도 설레는 일이었다. 우리는 보답으로 계란 후라이를 잔뜩 부쳐갔는데, 어머니! 감사하게도 수육에 김치에 맛깔난 장까지 준비해주셨다. 상추와 쌀밥과 고추장만으로도 맛있는 밥상이 더 푸짐해졌다. 텃밭 옆 정자 안에 둘러앉아 먹는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이게 바로 텃밭의 묘미 아닌가!

식사하는 내내 텃밭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연신 해주셨다. 감사를 받으니 부끄럽기도 했다. 함께 모두의숲을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나눠 먹는 기쁨을 함께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말이다. 어쩌면 각자의 밥상에만 오를 상추였지만,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그 울창한 텃밭의 상추와 고추는 여름에 열린 도시정글캠프의 도시락을 채워주는 재료가 되었다. 그 밭이 있었기에 도시의 정글을 지내러 온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이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로 그분들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버렸다. 텃밭의 추억을 기억하시길, 기회가 닿는다면 또 뵈실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마음속에 걸어본다.

글 이완솔(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초보농부의 도시텃밭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강지혜

도시농부워크숍 ‘텃밭의가을겨울’ 수강생
텃밭에서 할 것들이 엄청 많아진 두 아이의 엄마

현민주(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농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강지혜 평생학습관에 요리? 배우려고 알아보다가 화성 쪽은 시간도 그렇고 자격증만 밖에 없어서 수원까지 보다 보니 어떻게 왔어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은 한식 수업을 전통문화관에서 듣거든요. 어쨌든 요리 하려면 키우는 것도 알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채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민주 저희가 또 농사 외에 활동이 많았었잖아요. 제가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었던 이유가 항상 적극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두의숲 활동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에 많이 공감해주시고 참여해주셨지요.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지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집에서 이웃이랑 왕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지만 아기 엄마 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싫었는데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먼저 말도 걸고 이런 게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막상 우리 집에서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옆집 사는 사람들도 거의 엘리베이터에서만 보니까요. 지금 모두의놀이터축제도 크면 사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고 주변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잔치니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민주 그렇게 보셨다니 즐겁네요. 가을, 겨울 농사가 얼마 전 끝났어요. 어떠셨나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작게라도 변화 같은 것이 있으셨나요?

지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할머니 집이 있어서 도시에만 산 사람보다는 농사가 친숙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싶긴 했어요. 전원주택에 살고 싶었는데 애들이나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살면서도 꿈만 꾸곤 했죠. 이곳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들으면 구체화되기도 하고 환경보호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 저랑 타이밍이 좀 맞았다고 할까요? 사실 환경보호 얘기하는 데가 많이 없죠. 친구랑 할 얘기도, 누구랑 할 얘기도 아니고, 사실 실천도 못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얘기할 곳은 없기도 하죠.

민주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함께 말하고 공감 해줄 사람을 만났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것들이 꼭 정답은 아니어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애들이 텃밭에 와서 물 줬던 모습이 기억나요. 선생님이 느끼신 것처럼 도시에서만 지냈던 친구들과 달리 아이들도 자연과 함께 한 것에 대한 기억이 생겼겠네요.

지혜 그렇죠. 제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것처럼. 그런 게 심화 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텃밭 수업을 끝내고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모임에서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도 막상 집에 돌아가면 얻는 게 있어요.

민주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들이 허용되기도 하고 혹은 규칙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빈번한 농사의 실패도, 서리도 일어나기도 해요. 울타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죠. 선생님은 농사를 지으셨던 참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혜 서리는 마음이 진짜 아프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 같기도 해요. 다 벌레 먹고 두 개 남았는데 하나 가져가면 마음이 아프죠. 구역을 정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문을 닫아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농작물이 새싹일 때 밟힌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 하죠. 근데 굳이 울타리를?

민주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 모두의숲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항상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도 울타리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이 시더라고요. 반대로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있으면 좋겠다 하고요.

지혜 저희는 여기서 파고 저기도 파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분들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걸까요? 잘 자라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민주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에는 잘 자랐으면 하는데 금방 마음을 접으세요.

지혜 맞아요. 금방 접어요. 처음에는 꿈에 부풀었는데 금방 접게 돼. 그리고 막상 내 밭은 얼마 안 되는데 모아보면 꽤 많아요. 넘치지 부족하진 않으니까. 처음에는 욕심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점점 없어지죠. 저기 밭에 무도 있고 배추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멀해지니까.

민주 처음에는 내 것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밭도 내 밭이고 저 밭도 내 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지혜 오긴 오는데 이곳은 멀어서 가을에 자주 오긴 힘들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 사실 물 주는 일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었지요. 그래도 일정을 조율해서 봄, 여름에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따로 주말 농장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활동모임에서도 할 것은 많은데 진행이 더디죠. 하고 싶고, 해야 할 게 많아요. 활동 모임의 이번 컨셉은 농부의 겨울이지만 사실 하자고 하면은 수백 가지가 있죠. 다 못해서 그렇지. 하고 싶기보다는 배워둬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자나 거름 그런 것도 그렇고.

민주 농사 하다 보면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겨울부터 준비해야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마다 가끔 모임 보면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농사도 모임도 즐겁게 하시길 바랄게요.



모두의숲에서 자라나는 아이리스와 에이든

아이리스와 에이든 남매
초등학생, 거침없이 놀 수 있는 동네 꼬마들

현민주(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아이리스, 너 저번에 놀이터축제 온 거 기억나? 어떻게 오게 됐어?

아이리스 공부하러 도서관에 왔다가 나가 보니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놀았어요.

민주 그전에도 너희 놀이터 자주 왔었지? 에이든도 축제 아닐 때 자주 와서 놀았잖아.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에이든 나무 붙여져 있는 거 올라가고 지푸라기 쪽으로 뛰어내리는 거요.

아이리스 다른 것들은 올라가면 미끄러운데 이거는 딱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할 수 있잖아요.

에이든 원래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쳐서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폭신한데 떨어지고, 떨어지고 할 수 있어서요.

민주 아, 떨어져도 돼서 재밌었구나.

에이든 떨어지는 게 재밌죠. 동네 놀이터에는 없어요. 그런 건 많이 없죠. 그네, 시소, 그런 것밖에 없어요.

민주 너희 좀 놀 줄 아나 본데. 요새는 뭐 하고 놀아? 너희는 어떻게 노는 게 제일 좋아?

에이든 게임을 하거나...

아이리스 에이든 때리는 거요.

에이든 밖에서 노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민주 밖에서 노는 거 안 좋아? 저번에 와서 엄청 재밌게 밖에서 놀았잖아.

에이든 아니 그거는 밖에서 놀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 원래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해요.

아이리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카드게임.

에이든 사실 저는 원래 밖에서 노는 거 좋아했는데 누나가 나가기 싫다고 해서 저도 귀찮아서 이제 싫어졌어요.

민주 왜 그렇게 됐을까?

아이리스 제가 알아요. 에이든이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는 게 귀찮으니까 아예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노는 건 재밌는데 집에 갈 때 귀찮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민주 근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도 있고 뛰어놀 수도 있고 점프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 많잖아

에이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빼고 사실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귀찮고 덥고 친구도 별로 없고 놀이기구도 재미없고 밖에 나가서 놀 것도 없고 그래서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티브이 보고 컴퓨터 하고.

민주 그래서 그런 게 좋구나. 그럼 모두의숲 놀이터도 재미가 없을 수 있겠다.

아이리스, 에이든 아니 거기는 재밌었어요. 뛰어내리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에이든 뛰어 내리는 거 저는 계속했어요.

아이리스 타이어 했어요.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타이어 올라가고.

에이든 저는 타이어 던져서 어디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타이어 만화에서는 무겁잖아요. 실제로는 엄청 가벼워요.

민주 그거 엄청 무거운데? 그거 가벼운 장난감 타이어가 아니라 진짜 자동차 바퀴에 있는 무거운 타이어야. 다음에 오면 한번 가보자. 아이리스 저번에는 타이어 건너갔잖아. 지금은 그거 누가 통과하게 만들어 놔어.

에이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민주 아니 점프해. 이렇게 점프하던가. 사람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속 들어가 놀기도 해.

에이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는 위험해요. 사람이 갇혀서 뒤에 있는 사람이 깔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안에 숨었는데 엄마가 깜빡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찾아서 그냥 여기 갇히면 어떻게 해요

민주 엄마가 설마 깜빡할까?

에이든 그게 위험하네요. 저는 처음에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고양이도 통과 할 수 있게 하고 서서 갈 수도 있지요.

민주 너희 그거 알아? 놀이터에 있는 것들 다 직접 만든 거야. 점프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에이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민주 예? (웃음) 너희 누가 만든 지 알아?

아이리스 저는 누군지 알아요. 누가 나무로 뭐 만들고 있는 거 봤어요.

에이든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민주 아니,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서. '이렇게 만들까?' 해서

에이든 만들면 월급이 높아진다고 한 거 아니에요?

민주 이 사람들 돈 안 받고 했어.

에이든 아이들이 노는 게 좋아서?

민주 (웃음) 그런가? 놀이기구 만들었던 사람들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회사에 갔다가 퇴근하고 늦은 시간까지 놀이터를 만들었었어. 사실 그냥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사도 되지만 이걸 다 만든 거야.

아이리스 돈이 아까워서?

에이든 아이들이 항상 지루하니까.

아이리스 아이들 즐겁게 하고 싶어서 인 거 같아요. 그리고 만드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에이든 제가 말하려는 거 누나가 말했어요.

아이리스 저 하나 더 있어요.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 만들어서 놔두면 애들이 처음 오니까 위험하잖아요. 근데 지푸라기 놔둬서 애들 재미있게 해주려고 만든 것 같아요.

민주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날 나무 심기는 어떻게 오게 됐어?

아이리스 나무 심기는요. (에이든 조용히 해봐) 할머니가 보고 애들이 이거 하면 상상력이 쑥쑥 해질 것 같다고 해서 왔어요.

에이든 저는 할머니가 그냥 가라고 했어요.

아이리스 재밌었는데요. 그 다음 날 가니까 아주 조금 자랐어요. 오웬이 것이 더 많이 자랐어요. 이상하게 했는데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분명 오웬이는 빠듯게 했는데 그게 갑자기 똑바로 되어있었어요.

에이든 누가 해준 거 아니에요?

민주 누가 해줄 수도 있었겠다. 거기 마을 사람 누군가가.

에이든 너무 못해서

아이리스 근데 오웬이는 가루(툽밥) 조금 받았거든요. 그리고 물 엄청 많이 부었거든요.

민주 그게 비법이었나? 가루 조금, 물 많이?

에이든 아 잠깐만, 물 많이 주면 죽지 않아요?

민주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때 우리 분명 다 물 적당히 줬는데 희한하네.

아이리스 아 알았다. 그 나무는요. 옛날부터 물을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물을 먹고 쭉쭉 자랐나 봐요. 근데 그러고 보니 어떤 나무를 엄청 잘 심는 아저씨가 물을 듬뿍 주면 나무들이 좋아서 더 쭉쭉 자란다고 했어요.

민주 너희 나무 어떤 것 같아? 잘 자랄 것 같아? 너희 며칠 전에 나무 보고 왔다며?

아이리스 오웬이 것만 엄청 자랐어요. 저만 봤어요. 나무가 쭉쭉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커서 제가 유명한 나무를 가지고 싶어요.

에이든 제일 큰 나무가 되면 나무에서 사는 거예요.

아이리스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나무가 너무 커지면 그 이름표 때문에 못 자르는 거 아니에요?

에이든 선생님 지구보다 나무가 더 크면 우주에 산소가 생기잖아요.

민주 우와 너무 좋은 거 아냐?

에이든 근데 헤멜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리스 아 맞다 하늘보다 나무가 더 커서 우주까지 가면 우주가 숨 쉴 수 있잖아요. 나무 위에 나무를 심고 또 나무 위에 나무를 심고 그러면 우주에다가 나무가 공기를 주잖아요.

에이든 우리가 우주에 공기를 줄 수 있는 첫 사람이 되겠네요. 달에 먼저 간 사람들보다 훌륭해요. (웃음)

민주 그렇게 훌륭해질 수도 있겠다. 상상만 해도 멋있다.

아이리스 이제 선생님이 또 질문해주세요.

민주 선생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우리 놀이터 혹은 모두의숲에 어떤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어?

아이리스 제가 원하는 건요 모두의숲 동굴이요.

에이든 저는 모두의숲 있잖아요. 나무 모양 타고 올라가고 1층, 2층 있고 그리고 한쪽에 풀 놔두고요. 또 뭐 놓지? 풀 터널 옆에 꽃도 심고요.

아이리스 오 좋은데! 기지에 미끄럼틀도 해요. 아기들이 안 다치게 옆에 판을 대고.

에이든 우리 기지를 만들자!

아이리스 어린이들의 기지. 이름은 뭐로 하지?



놀아라 놀아라, 아이들아

허정희

아이리스·에이든·오웬 삼남매의 할머니
강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신세대 할머니

허정희 어느 날 나무 심기 워크숍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보니까 평생학습관이네요. 내가 이곳을 아니까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 봤죠. 아이들한테 참 좋은 것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등록했거든요. 선착순인가 그래서 얼른 등록하고 아이들 세 명, 나 이렇게 해서 네 명을 등록했었죠.

현민주(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맞아요. 그렇게 아이들 세 명, 할머니까지 네 명이 오셨죠. 아이들 세 명과 함께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오셔서 너무 열심히 그리고 즐기다가셨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평소에 이런 활동을 자주 가세요?

정희 나는 아이가 딸 하나인데 공부보다도 체험, 친구들과하고 노는 거를 가르쳤어요. 나에게 손주지만 요새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 학원 이어서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로봇 같아.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뭐 연날리거나 활터에서 활 쏘게 한다던가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줘요.

민주 역시 그래서 그런지, 놀이터축제 때도 아이리스가 기억에 남는 게 다른 아이들은 놀려고 해도 부모님을 찾는데 혼자 와서 씩씩하게 놀더라고요. 그리고 또 넘어져서 다쳐잖아요. 그때도 부모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주변 어른들이 놀랄까 봐 자기가 괜찮다고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정희 우리 딸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오학년인가 사학년인가, 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박삼일 보행하는 걸 보내기도 했죠. 애네 엄마가 무남독녀 외딸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런 식으로 키웠지. 아주 강하게요. 애들도 그렇게 돌보려고 해요.

민주 애들이 정말 의젓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없이 카페에서 셋이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놀이나 교육의 장소가 한정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실내고, 야외는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기도 하죠. 예전에는 흙이나 물을 갖고 놀았다면 요새 바닥은 고무에 플라스틱 놀이기구가 대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모두의숲에 있는 타이어나 벚단이 낯설거나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정희 만져볼 수 있고 그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주 선생님처럼 이런 것을 놀이물 그 자체로 재밌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더럽다고 꺼리거나 이 속에 혹시 세균이 있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정희 좋죠. 짬 있잖아요. 애들 떨어지면 다치지 않게.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놀고, 나는 여기 이런 거 진짜 잘해 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사진 많이 찍었어요. 웃는 모습, 찡그리는 모습 이런 활동적인 모습을 담으려고 해요.

민주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죠.

정희 그런 걸 즐기는 모습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와서 '나 백 점 맞

있어요' 하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학교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네들의 인성이 거기서 갖춰지는 거거든요. 체험에서 심성도 갖추어져요. 며칠 전에도 아이리스하고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나무 심은 곳이 도서관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리스야 우리 나무 어떻게 됐을까?' 하니 가보자 해서 '아직까지는 뭐 없을 거야' 했는데도 가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아이리스가 '아이 자라지 잎이 많았네' 하길래, '그때 그 선생님이 그랬잖아. 겨울에 잠잔다고' (웃음) '잠자~ 봄 되면 이제 깰 거야'라고 내가 말했지요.

민주 저희가 놀이터에서 염두하는 것은 놀이가 항상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되도록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우러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취지로 나무심기워크숍이 진행되었죠.

정희 맞아요. 나도 어렸을 때 개나리 나무 심는 날 해서 학교에서 심고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때 꽃이 이만해서 몇 개 있었고, 심었던 게 기억이 나요. 참 이거를 꺾어서 심으면 어떻게 뿌리가 내릴까 고민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는 아이들한테도 해주면 애들이 지금은 재밌지만 나중에 애들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크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죠.

민주 아이리스도 친구 엄청 많던데요.

정희 애는 애들을 몰고 다녀요. 사우나가면 일곱 명, 여덟 명 다 같이 다녀요. 몰고 다녀요. 제 엄마처럼. 강하게 키우는 게 그게 강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힘. 그게 강한 거잖아요. 공부만 해서 애네들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행궁에 타종 갔을 때, 추위에 떨기도 하고 종이 치기까지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이 건강해지는 힘인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힘. 그런 거를 해주려고 하지요.

민주 모두의숲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강해지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문화로 놀이짱, 괜히 놀이짱이 아니다

김정석, 오아름

문화로놀이짱 멤버, 모두의숲 기지제작 작업자
수줍지만 손으로 만들며 즐겁게 노는 작업자들

정다현(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기지를 시민분들도 그리고 다른 작업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기지 제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오아름 기지는 저희가 두 번에 나누어서 작업 했어요. 1차 작업은 같이 했고, 2차 작업 때는 설계만 하고 가지는 못했는데, 뼈대가 주어져 있으니까 덧대는 2차 작업이 훨씬 재밌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어요. 완결된 구조물처럼 보이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시민들과 프로젝트로 함께 작업하기에는 난이도가 높고 고공 작업도 있어서 경험이 있는 제작자들이 하기에 좋은 작업이었죠. 크기를 작게 한다면 시민들과 프로젝트로 하기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현 모두의숲에서 기지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오며 가며 그걸 보신 분들이 저희 축제에 오신 거예요. 이 공간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걸 오며 가며 봐왔는데, 뭐 할건지 궁금해서 왔다. 이리셨어요. 그런 면에서 기지는 모두의숲에서 상징적인 구조물이에요. 한편으로는 생뚱맞잖아요. 입구에 딱하니,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아름 다행이다.

김정석 처음에 두 가지 타입을 제안해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노말하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조금 높이를 나누어 층이 생긴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 두 가지였는데 저는 두 번째 타입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층을 나누는 것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뭔가 위험해 보이고 웬지 선택 안 하실 것 같아서 위험해 보이는 걸 빼려고 했는데 아름이 그냥 다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다행히 위험한 것을 선택해서 좋았어요. (웃음)

아름 그게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거나 신뢰 관계가 없거나 할 때나, 클라이언트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훨씬 안정적으로 선택을 해요. 구조도 그렇게 짜게 되고 그렇죠. 선생님들이니까 '아마 두 번째 타입을 선택하실 거 같아' 했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 하는 고민도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건 기지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던 다이닝 테이블 작업이 재밌었어요. 다 재활용 자재를 썼어요. 비싸고 집 같은 자재들인데 마침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높이도 그렇고 잘 어울렸어요.

정석 만들면서 그때는 기지가 그곳에 오래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나중에 해체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2층에 울타리가 없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그랬어요. 되게 미완성 같은 것에 대해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떨어져도 흠바닥이라 다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하셔서 새로웠어요.

다현 아이들이 쉽게 다치지 않아요. 아직 크게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민원은 수시로 있어요. '위험해 보인다', '철거해달라' 그런 건 많아요.

아름 그런 걸 치위달라고 하는구나.

다현 한편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만나면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요.

아름 기지는 마감을 한 번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얘기했지만, 슬럼화에 대한 우려가 되기는 하죠. 그렇다고 알록달록한 색을 입히라는 게 아니라 투명한 바니쉬 같은 걸 바르면 나무색이 오래가요. 그럼 색이 바래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정석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를 확인한 경험이 몇 번 없는데, 기지에 문을 다는 2차 작업을 위해 다시 갔었잖아요. 기지에 낙서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어요.

다현 아이들이 기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제 집처럼 되었어요. 바닥에 벽들도 깔았죠. 그림을 그린 건, 어릴 때는 집에, 벽에 그림 그리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축제에서는 크레파스 던져놓고 마음껏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신나게 그려 놓았더라고요.

아름 아이들과 작은 걸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기지처럼, 그리고 저도 모두의놀이터축제의 모습을 인스타로 봤어요. '만들이'팀이 세팅한 놀이터 되게 재밌던데요.

다현 그때 모두의 숲이 폭발했어요. 흥이 분출되었었죠. 만들이 팀도 즐겁게 놀다 가셨던 것 같아요. 해주시는 말씀이 기관들이랑 축제할 때 하지 말라는 게 많대요. 땅 파는 것도 된 적이 없었대요. 잔디가 망가져서, 근데 우리 땅 파고 물 흘려보내고 개간사업하고 난리가 났었죠.

아름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독일에 출장 갔을 때 모든 놀이터가 다 그랬어요. 다 댐, 수로나 이런 걸 애들이 만들 수 있게 물과 도르래 펌프가 놀이터마다 다 있었어요. 수로 댐 만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놀이시설이었죠.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에게 '물대게 하는 것이 놀이구나' 하고 놀랐죠. 정말 재미있어 보였어요.

다현 기지 덕분에 재밌는 일들이 생기는 것, 그런 공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구조물 규모가 큰데,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모양이나 용도가 계속 변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두의숲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정석 저희가 했던 되게 뿌듯한 작업 중 하나가 모두의숲의 기지예요.

다현 앞으로 모두의숲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요?

아름 아까 이야기 나온 작은 기지, 그런 아지트 같은 구조
물들을 만들어보면 좋겠네요. 근데 또 만들어도 괜찮을까
요?

다현 또 만들어요! 기지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저희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지를 사랑하는 사람
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지가 사라지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시민들의 힘
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요. 재미있는 것들 같이 해주셔서 늘 마음 한켠에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모두의놀이터,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경오

만들어멤버, 모두의놀이터축제 놀이터토크 패널, Play zone 진행
진짜로 잘 노는 사람

정다현(수원시평생학습관 책임 연구원) 선생님이 처음에 저희랑 결합하시게 된 계기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모두의숲에 오시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김경오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항상 축제나 어떤 수업을 운영하던 느끼는 거는 ‘아,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담기란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획자들의 편이에 따라서 아이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큰 틀이 정해지곤 하는데 그 틀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다현 아 그래요?

경오 다른 데서는 그냥 보통 이렇거든요. 우리 이번에 여기서 이런 축제 하는데 애들 많이 와서 놀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젊은 엄마들도 많이 온다. 놀이터 해달라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놀이가 정말 사람들, 특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놀이가 작용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는 어떤 고객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소통하기 위해 다현 선생님과 연락하고 메일 주시고 여기 공간 와서 느낀 거는 그것들이 가능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주고 싶은 메시지와 놀이를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다현 그 메일 다시 한번 읽어 봐야겠다. (웃음)

경오 그때 어떻게 보내 주셨냐면 지금까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 왔는지 정리를 꼭 해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길게 보내주셨어요.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놀이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 들었죠. 일단은 너무 좋았어요.

다현 왜냐면 간절했어요. 선생님들이랑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들 활동하시는 거 보고 우리랑 너무 딱 맞는다. 계속 민주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분들 너무 재밌고 우리랑 모두의숲에서 하면 너무 딱 맞는 그룹인데 꼭 섭외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선생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경오 ‘수원인데, 해?’ 고민했는데 메일 보고 딱 해야겠다 했죠. 왔을 때 이미 공간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셨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이미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 이곳에서 우리가 뭐 기획하는 것보다 살짝 손가락만 얹으면 되겠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게 갖춰져 있으니 우리가 조금만 던져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축제 당일에 그랬었죠. 전날 놀이터 토크했던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의 반복이지만, 놀이가 어떤 외형만으로 신나고 재밌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으로만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삶 속에 작용하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되게 좋았어요.

다현 저도 그 포인트가 진짜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기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놀이거리를 펼쳐주셔서요. 커튼놀이부터 시작해서 도르래

그리고 물길 이어지는 것들이 전혀 어색함 없이 공간에서 어우러져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주시는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놀이터 토크는 포럼이나 간담회 형식으로 단친 회의들은 했었지 저도 이런 오픈 토크 형식으로는 진행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놀이활동가분들과 함께 한 토크는 어떠셨어요?

경오 구성이 자연스러웠어요. 어떤 팀들이 어떤 주제를 딱 정해놓고 사례발표를 한다거나 (물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가까운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적인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자기가 하고 있는 고민이나 비슷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나오는 것들,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혹은 ‘저런 식으로 일을 벌일 수도 있구나’ 사람들을 다양하게 볼 수도 있었고 굉장히 편안한 자리여서 훨씬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다현 그렇지요. 저도 참 좋았어요.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 서로 힌트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오 일상 속에서 일상과 함께 놀이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나 싶어요.

다현 ‘라인업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셨던 분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도 이런 형식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패널분들이 ‘이렇게 해주실까?’라는 걱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패널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고 이야기도 더 꺼내어 주시고 하니까 오신 분들도 자신의 진짜 고민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위안이나 용기도 얻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경오 인트로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건 기획의 영향이겠지만, 저희는 한 단체나 활동가와 좀 더 밀접하게 온종일 혹은 여러 차시에 만나면서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놀이터 토크 참가자는 그냥 아이 키우는 어머님일 수도 있고, 그냥 일상에서 자신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놀이터 토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런 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할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현 놀이터 토크 참석자 중에 임산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맘카페에 후기를 남기셨어요. 그분은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랑 어떻게 놀아주지’라는 고민 탓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쓰신 내용이, 그 고민에 출발해서 오셨는데 결국 ‘나는 뭘 하고 놀고 있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뭘 하고 놀았을까’, ‘내가 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아이랑 놀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그 놀이터 토크에 와서 생각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참가자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죠.

경오 저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놀이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더 촉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여태까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단순히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즐거움, 자율성이나 주체성을 토대로 하는 이런 활동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쉽게 사회발달, 신체발달, 정서발달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드는 생각은 사실 나이별, 단계별로 스스로가 처한 상황들이 다르고 단계별로 발달하는 영역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할까, 아이들한테든, 어른들한테든.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들한테도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기회가 가고, 또 그런 기회를 주려고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학에 관련된 테스트를 해보면, 자신의 자유와 즐거움에 욕구를 억누르고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반면, 생존과 성취 욕구가 굉장히 과잉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부유하게 있을 수 없고 환경이 여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놀이가 줄 수 있는 가치들과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함께 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현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평생학습관이잖아요. 평생학습관에서 놀이를 키워드로 가져온 이유는 학습관에서는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놀이라는 개념은 전 생애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연령대별로 놀이가 구체화 되어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라든가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꾸준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의미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만약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었으면 기획이 또 달랐을 거예요.

경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어른들한테 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한테는 그런 쪽이 더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좀 더 긴밀하게 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자리로 연결하게 되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해요.

다현 맞아요. 토크는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결국 놀이라는 것들의 고민을 그렇게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 할 수 있었죠.

경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놀이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렇게 놀이가 전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어른들한테도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행사를 열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 놀이가 필요하고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의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현 공통질문이기도 한데 김경오라는 개인이 있잖아요. 만들이란 팀 말고 선생님이란

개인한테 있어서 놀이라는 활동이 어떤 가치나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해요. 저도 항상 되게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이 되었을 때 업무가 되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생존을 위해서 영위해야 하는 어떤 직업이나 일에 기준이 되었을 때가 있는데 사실 지금 놀이에 대해 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는 아주 궁금했어요. 사실 항상 제가 하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경오 저도 되게 듣고 싶네요.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놀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아, 놀이를 해야겠다.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우연한 기회로 하게 되었고 활동하다 보니 드는 느낌들이 되게 끌렸겠죠? 끌린 이유가 있었을 거고. 저희가 처음에는 축제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교육보다 축제가 더 많았었고 그렇게 연결이 되었죠.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의 어렸을 적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감각들이 나한테 되게 재밌었지'라고 되새겨 보면서 놀이거리를 만들었죠. 저한테는 기술이 없었어요. 만들이는 항상 로우테크를 지향하니까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허접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축제에 가져가서 놀았는데 저는 내심 못 만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부서질지도 몰라, 만들새가 너무 허술해서 어떤 작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아예 사라졌어요. 내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이로 만들어 낼까' '이 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들이랑 재밌는 놀이를 만들까' 하면서 놀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걸 주체하거나 주관했던 단체가 어떠한 얘기나 터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미리 이런 걸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도 없었죠. 작가의 자율성이나, 즐거움을 뽑아낼 수 있는 영역들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많이 허용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처음 축제에서 돌아보면서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르구나. 뭔가 내가 재밌있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못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재밌는 활동들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재밌는 걸 느끼고 있었을까 이거에 집중해서 다음 놀이 기물들을 하나 두 개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이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저희를 허용해 주고 아이들과도 즐겁게 지내면서 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질문을 들었을 때 성장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생각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놀이에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재밌으니까 애들이랑 재밌는 판을 벌이는 시기였어요. 하다 보니까 '놀이가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이거나,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내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구나, 특히 어른들한테 너무 많이 빠져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계속 돌아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일하는 방식과 사는 방식은 밀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저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요즘에는 또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식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무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자유와 즐거움이 추구하다 보니까.

다현 맞아요.

경오 그렇다면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즐거움을 통해서 생존의 영역인 의식주를 해결한다든가 뭔가 비축한다든가 이를 대비한다든가 하려고 해요. 사실, 이런 부분도 분리되어 보이지만 자유와 즐거움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근력, 또는 삶에 기술적인 것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실패를 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혹은 사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죠. 요즘에 그런 걸 계속 연결하려는 작업을 하면서 더 의미가 생기네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현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질문을 하면서 저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너무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선생님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힘이 되고 내가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든든하네요.

경오 제가 ‘만들이’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처음 해봐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식의 담론으로 연결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되게 좋네요. 이런 대화들이 가능하고 이런 기획자들을 만나고 이런 공간이 있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좋아요. 저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만들이 하면서 ‘야 우리 진짜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뭘 좀 알아 좀 자화자찬같이. 우리 뭘 좀 알고 활동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외롭다. 참 고립감이 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철학적으로 깊이를 가지고 당당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잘 보여줘야지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저는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배워가는 거겠죠.

다현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경오 축제 때 저희가 제일 재밌겠다고 한 거는 물을 끌어온 거랑 땅을 파는 것과 도르래예요. 사실 저희가 짚단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거든요.

다현 우리 그때 통했잖아요! (웃음)

경오 딱 왔는데 짚단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도르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흙을 푸고 물을 담으면 위에서 올리든 위에서 무엇을 내리든 도르래와 바스켓 하나만으로 다른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위와 아래라는 공간개념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매개가 있으니까 도르래가 너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신혼여행 중이었잖아요. 신혼여행 하면서 도르래를 많이 관찰했어요. 재밌는 형태의 도르래도 많이 봤고 철물 파는 곳에 가서 하나 사오긴 사 왔어요. 여기 잘 맞지 않아서 못했지만요. 물론 도르래 생각을 했던 건 여기에 점프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위아래라는 공간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자

는 간단한 발상을 했던 것이고 그게 재밌게 작용을 해서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짚단도 올리고 흙도 올리고 내리기도 하면서 그런 소통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재밌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수직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놀이짚이 만든 기지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현 함께 협업으로 프로젝트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경오 기지도 놀이터로 개조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요즘에 하고 싶은 놀이는 지난번 축제 때, 이곳에서 활용해 볼 수 있었던 건데 아이들이 삽이나 카트, 범퍼카 타다가 망가지면 전동 드릴 쥐여 주면서 직접 고치게 했었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놀이감을 가지고 세팅했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지가 있으니까 잔뜩 나무토막, 폐목재들과 톱이랑 이런 것들을 쥐여 주고 저 기지를 아이들의 손으로 확장시키고 변형시키고 이어붙이고 할 수 있겠다고 봤어요. 소위 모험 놀이터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해요.

다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경오 해볼까요? 저희도 너무 이걸 하고 싶은데, 맞는 곳이 없었어요. 여기는 다 되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건 힘들고 이미 만든 것이 있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기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축제 얘기를 더 하면, 그때 너무 좋았던 게 아이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어머님들이 조금 개입하다가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아 어떻게 해야 하죠?’ 하시길래 ‘지켜보세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싸움이 심하지가 않았고 어떤 아이가 너무 서럽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중이었거든요. 화가 이만큼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쏘아붙이는 중이었거든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얘기를 한 거죠. 아이들이 일단은 의사소통을 하는 중이니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줍시다. 했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주머니 받거니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어머님이 얘기했던 게 ‘아 뭔가 그냥 노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과정 안에서 되게 배울 것들이 많네요’라고 했었거든요.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다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경오 사실 그런 걸 담고 싶지만, 축제로 보여주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축제는 축제하기 전이든 이런 인식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놀이에 대한 인식을 가진 후에 축제를 열면 되게 좋거든요. 수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오시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들이 노시다가도 이런 놀이터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정해져 있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런 분위기 없이 갑자기 축제만 딱 보여주면 당혹스러워하세요. 너무 위험하고, 이상하고, 낯설고, 놀면 안 될 것 같고.

다현 이런 얘기는 선생님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희는 모르는 이야기에요.

경오 네 그런 게 있었고 여기 물놀이했을 때 신발과 옷 젖는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거든요.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이미 물놀이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 절대 안 돼. 얼른 나와'라고 그러시는데 애가 듣는 척도 안 하니까 포기하고 한발 물러서셨죠. 그랬더니 거기 주변에 놀고 있던 다른 아이들이 '너희 엄마는 너를 과잉보호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괜찮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과잉보호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귀엽기도 하고 아기들끼리 그러니까. 어떤 비교도 될 수 있지 않았나 하구요.

다현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알고 있었네요!

경오 당연히 신발이나 옷이 젖거나 더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어머니가 힘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다양함 속에서 보게 되죠. 사실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축제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현 다 떠오르네요. 그 장면들이, 그날 있었던 일들이.

경오 저한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해 지고 저희 철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애가 저기 점프대 위에서 계속 서성서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물으니까 자기가 다른 건 다 놀았는데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만 못 해봤다는 거예요. 서보니까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여기 지푸라기가 푹신푹신타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먼저 뛰어내렸는데 그제서야 걔가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면서 또 뛰어내리고 또 뛰어내리고, 그리고 저희 철수할 동안 뒤에서 더 놀다 갔어요. 그 아이한테 하나 남은 마지막 미션이었죠.

다현 선생님을 못 만났다면 못하고 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경오 해내고 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감동이었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 상황에서 어른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고 했을 때 그런 것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현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어른이 우리랑 같이 있어 주는지가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 하지 않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놀이터토크에 다녀왔어요

수원맘 카페에 올라온 놀이터 토크 참가 후기

오늘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모두의놀이터 개막식? 에 다녀왔어요. 날씨는 정말 추웠는데 불도 피워주시고, 임산부라 불 근처에 가면 연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 멀찍이 앉아 있으니 오셔서 담요도 주시고 하셔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경험도 했어요.

유자차나 여러 간식도 있어서 삶은 계란도 먹고 팔빵도 먹고 했네용 ㅎㅎ

여러 분야의 놀이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놀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원래 여기 온 목적은 이제 곧 태어날 아기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지? 라는 고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며 아기가 아니라, 저에게 초점을 맞추어 여러 성찰이 일어나더라고요.하하

가령 놀이의 조건은 '심심한 상황', '심심한 사람'이라는 대목에서 '나는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재밌게 잘 놀았는데 지금은 쉴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바빠질수록', '노는 능력'이 퇴화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었어요.하하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냥 저보다 어린 애들이랑 놀아주라고 하면 놀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게 애들이랑 놀았거든요. 그냥 모든 놀이를 창작해서.... 근데 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이터 토크에서 '엄마도 행복한 놀이터'라는 책 저자분께서 가족학교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부모님들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맡아 아이들과 김밥도 말고 목공도 하고 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했지만 결론은 내일은 강연이 아니라 여러 놀이 행사를 하더라도요! 풀밭에서 책 읽기, 벌레 관찰하기 같은 여러 체험 등으로 이뤄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글 올려봐요 ^^

미샤라

모두의숲 사계절

겨울에서 봄

1.30-2.27 <도시농부워크숍: 텃밭의 봄 준비하기>
모두의연구소 개장
모두의연구소에서 씨앗 발아 실험

1-2월



3월

3.20-7.10 <도시농부워크숍: 텃밭의 봄과 여름>
3.20 봄의 텃밭을 위한 본격적인 씨앗 발아
3.26 모두의숲에 호스 연결
3.27 잔디밭을 텃밭으로, 땅 만들기

봄에서 여름

4.3 풍년을 기원하는 시농제
4.11-05.16 <몸마음 워크숍: 내 몸 알기, 몸과의 대화>
텃밭에 봄과 여름 작물 모종심기
텃밭에 이름 지어주기
4.30-6.21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

4월



5월

5.3 무더위와 폭우 속 텃밭 대홍수 1차
5.16 2차 대홍수
5.19 우만초 친구들 텃밭 합류
5.29 연못 파기 시작



6.05-6.26 <몸마음 워크숍: 모두의 오아시스>
6.12 연못 완성
6.14 나무 100그루를 사다
6.20-7.11 <몸마음 워크숍: 마음 라이브>
기지설치
6.22-24 모두의놀이터축제 & 도시정글캠프 개최

6월

여름에서 가을

폭염 속 말라가는 작물을 살리다

8.23 봄과 여름의 작물 씨앗 채종

8.28~11.20 <도시농부워크숍: 텃밭의 가을과 겨울>

8월



7월

7.3 봄과 여름 농사 마무리

7.3 두엄밭 개간

7.20 작은 연못에 연꽃 만개

7.21 <몸마음 워크숍: 한여름 밤의 오아시스>

7.30 큰 연못에 부레옥잠꽃 만개

9월

가을농사 시작, 무, 배추, 파, 상추 등
가을작물 파종

풍성한 가을 텃밭



가을에서 겨울

10.12~13 두 번째 <모두의놀이터축제>
배추와 무가 실해지면서 종종 서리를 당함

12.1 나무가 없는 숲이 어디 있으랴. 숲이 아니라 나무를 봐라!
더 작게 봐라. 나무를 심자.
<나무심기 워크숍>

10월



12월



11월

11.8 텃밭의 가을과 겨울 작물 수확제와 김장워크숍

11.13 <정원특강-식물과 안녕 1. 우리집 사계절 식물 생존기>

11.14~11.28 <몸마음워크숍: 마음 라이브, 자존감의 회복>

11.14~11.28 <몸마음워크숍: 마음 라이브, 아내로 산다는 것>

11.20 텃밭정리 시래기 트리 만들기

11.20 <정원특강-식물과 안녕 2. 손에서 마음까지 식물 만나기>

11.27 <정원특강-식물과 안녕 3. 겨울, 정원의 발견>

모두의숲 이야기

펴낸곳

수원시평생학습관

펴낸날

2018년 12월

펴낸이

정성원

엮은이

정다현, 이완술, 현민주 교육팀 연구원

디자인

강경탁, 장윤정(a-g-k.kr)



수원시 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주소

1623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전화

031-248-9700

팩스

031-248-9902

홈페이지

learning.suwon.go.kr

블로그

suwonedu2011.blog.me

인스타그램

[slowmakespace_suwon](https://www.instagram.com/slowmakespace_suwon)